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세계 각국 평가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기록 평가전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constructing Archival Appraisal Regime of Foreign Countries in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 Focusing on Archival Appraisal Strategies in a National Point of Views

김 명 훈*

Myoung-Hun Kim

차 례

1. 서 론	4. 우리나라 평가제도 개선방향을 위한 제언
2. 전자기록 평가상의 특성 및 기능 평가의 한계	5. 결 론
3. 세계 각국의 영구보존기록 평가 전략 분석	•참고문헌

초 록

본고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국가 평가체제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필연적인 평가방식이라 할 수 있는 기능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 기록 선별에는 일정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기능평가가 지닌 한계를 논의한 다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구보존 대상 평가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호주의 범정부 기능분석, 영국의 평가정책 및 수집정책, 독일의 다기관협력 평가전략, 캐나다의 거시평가 전략을 분석하였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현용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조화된 국가 평가체제의 토대를 제공해주게 된다.

키 워 드

전자기록, 전자기록 환경, 기록, 영구보존기록, 기록관리, 평가, 평가체제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강사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Archives and Inform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jmhwddhappy@hanmail.net)

• 논문접수일자 : 2008년 5월 1일
• 게재확정일자 : 2008년 6월 10일

ABS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provide a direction for reconstructing the national regime of archival appraisal in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Functional appraisal, which inevitably carries out for appraising electronic records, has defects in aspect of selecting archives important in a national point of views. To do so, this article discusses defects of functional appraisal, and then suggests the necessity of archival appraisal strategies that complements functional appraisal. To investigate this archival appraisal strategies, it analyzes Australia's Whole-of-Government Functional Analysis, United Kingdom's Acquisition Policy and Appraisal Policy, Germany's Cooperative Cross-Archives Appraisal and Canada's Macro Appraisal. Ultimately, this analysis is able to establish a base of the regime of archival appraisal which will harmonize primary value at current stage with secondary value at non-current stage in a national point of views.

KEYWORDS

Electronic Record,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Record, Archive, Record Management, Appraisal, Appraisal System

1. 서론

21세기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기록의 평가(Appraisal) 역시 논리 및 방식 면에서 대대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종래의 종이기록 환경에 기반을 둔 사후적인 평가방식은 사전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며, 아울러 비현용 단계에서의 독립된 업무에서 기록의 생산 이전부터 기록관리 전 과정 속에 유기적으로 수행되는 프로세스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진본성을 지니지 않은 전자기록의 평가는 무의미하다는 논리에서 진본성 평가가 새롭게 설정되며, 기

술력 내지 보존능력 역시 평가 상의 필수적인 고려사항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기록의 평가를 위해 현재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평가방식은 기능평가(Functional Appraisal)이다. 기능평가는 업무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평가방식으로, 종이기록 환경에서 주류를 형성해 온 기록의 내용에 기반을 둔 평가를 지양하고 내용이 형성된 배경을 이루는 맥락상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평가는 업무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관례상 영구보존기록의 선별에는 일정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각국 국립

기록청에서는 별도의 평가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6년 국가 기록관리 혁신과정에서 평가제도를 개편하였으나, 중요기록물의 평가 논리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태이다. 이전 기록물분류기준표에 기반을 둔 평가방식을 전자기록 환경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였지만, 가치평가 측면에서는 종전의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방식과 질적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 최근 전자기록 환경에서 국가 및 사회는 더욱 다원화되고 복잡한 메커니즘 하에 영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파편화된 내용 선별을 지양하고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미래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기록을 선별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영구보존기록 평가체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의 평가체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전자기록 평가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아울러 전자기록 평가를 위한 보편적 방식으로 부상한 기능평가의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기록 선별을 위한 별도의 평가전략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현재 주요 국가들에서 수행되거나 수립 중에 있는 영구보존기록 평가전략 사례를 분석하였다. 단 이러한 분석은 호주, 영국,

캐나다,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이들 국가의 평가전략들은 구체적인 제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평가체제의 제도적 보완에 활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 요소들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3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한 다음, 영구보존기록 평가체제 정비를 위한 방향성을 결론을 대신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평가체제 정비를 위한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관계상 본 연구는 해외의 선진사례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실제 현행 평가제도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치 않았다. 이러한 실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별도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실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향후 우리나라 평가제도 정비를 위한 방안 모색에 일익이 되길 기대한다.

2. 전자기록 평가상의 특성 및 기능평가의 한계

종이기록 환경에서의 평가는 업무를 통해 주어진 결과로서의 기록을 생산 이후의 독립된 단계에서 내용상의 가치에 따라 선별하는 분리된 행위였다면,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는 업무와 기록의 연계 속에 업무상의 필요

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유기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내용-구조-맥락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논리적 객체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적 내용에 기반을 둔 사후적인 선별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며, 이로 인해 업무분석과 연동한 기능상의 중요도에 따라 사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전자기록의 맥락성 및 증거성 파악이 평가의 기본 전제로 설정되며, 진본성이 부재한 중요기록물의 선별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진본성평가 역시 새로운 평가절차로 자리하게 된다(김명훈 2005b, 135-137).

이러한 전자기록의 평가는 기록이 지닌 현용적 가치에 우선적으로 주목한다는 점에서 평가 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김명훈 2006, 17). 업무 행위를 고스란히 반영한 증거를 기록으로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되는 전자기록 환경에서, 업무와 기록을 통합시킴으로써 맥락을 지닌 증거를 원천적으로 확보케 하며, 아울러 업무와 기록관리가 연동된 업무친화적 기록관리 방향 속에 조직의 영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록을 획득하는 것이 평가의 기본 논리로 설정된다.

이와 더불어 전자기록의 평가는 생산맥락과의 연동 속에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완전무결한 상태로 선별한다는 특성 또한 지닌다. 사전적인 업무 분석을 통해 기록이 지닌 증거성 및 행위와의 연계를 통한 맥락성을 원천적으로 확보한 가운데 맥락상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평가가 수행되며, 디지털 객체들 가운데 업무

행위내역을 반영한 증거로서의 기록을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가용성 등의 기록 속성을 유지한 채 선별할 수 있게 한다(김명훈 2005b, 144-146).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한 평가체제 및 방식은 과거와 같이 단절적인 기록관리 흐름 속에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하는 분리된 단계가 아닌, 사전적인 업무분석을 주축으로 기록의 생산 이전부터 기록관리의 전 과정 속에 유기적으로 수행되는 유기적 프로세스를 구축케 된다.

이와 같은 전자기록 평가를 위한 방안으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은 기능평가이다. 기능평가는 기록이 지닌 내용상의 가치가 아닌, 기록이 생성된 연원으로서의 기능이 지닌 중요도에 기반을 둔 평가방식이다. 논리적 실체로서의 수많은 전자적 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기록 자체에 대한 내용적 접근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아울러 유동적이며 다변적인 조직 및 기능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기록생산 환경에서 기록물 자체의 내용은 해당 기록물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록의 내용이 아닌 맥락을 함유하고 있는 기능에 토대를 둔 평가는 설득력을 업게 된다. 또한 업무행위 내역에 대한 증거를 기록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록의 생성 모태인 업무를 상세히 분석해야 하며, 아울러 이를 통해 해당 업무에 필요한 기록의 범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능평가는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김명훈 2005a, 106-107).

하지만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능평가가 지닌 자체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역사적 가치·문화적 가치·사회적 가치 등 소위 Schellenberg가 개념화한 2차적 가치에 대해 등한시하기 쉽다는 점이다(Mills 2005, 2). 기실 기록의 평가는 모든 기록을 보존할 수는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자연의 진리처럼 기록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새로운 가치가 새롭게 생성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영구보존 대상을 한정하여 보존하는 평가방식 역시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기능평가는 주로 조직 내지 업무상의 현용적 필요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영구보존 대상의 선별을 위한 평가방식으로는 일정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Twigge 2005, 21). 기능평가는 업무기능 분석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에 업무상의 필요나 설명책임 요건, 법적 규정적 요건 준수, 위험평가 등과 같은 현용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 가능하며, 또한 업무상의 맥락 속에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그 주안점은 현행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상의 가치에 놓여있는 관계상 역사가나 기타 연구자의 필요를 간과하거나, 체계적인 조직의 활동 결과로 생성되지 않은 기록물의 평가 방법론으로는 적절치 않게 된다(Man 2005, 31).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자기록 환경에서 국가적 차원의 기록 평가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영구보존 대상 선별을 위한 별도의 평가방식 마련이 필요하다. 기능평가는 각 기관의 업

무분석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현용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록의 선별 방식으로는 적절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 대상 선별 방법론으로는 일정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능평가와는 별도의 영구보존 대상 선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국가 및 사회는 더욱 다원화되고 복잡한 메커니즘 하에 영위되고 있다. 문서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의 보편화와 함께 인간의 사회적인 활동상은 대부분 기록으로 남겨진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기록의 선별로는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사회 속에 기록의 맥락 파악이 어려우며 아울러 파편화된 내용 전달로 인해 전체적인 사회상의 재구축이 불가능하게 된다(Bantin 1999, 11-12). 따라서 방대한 양의 기록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목표를 정립함과 아울러 평가에 대한 체계적·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록보존소는 증거적 내지 정보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선별하여 보관하는 차원을 넘어, 기록의 평가를 통해 사회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명확한 지향점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Laberge 1987, 44-49).

이를 반영하듯 현재 세계 각국의 국립기록청에서는 당대의 국가 및 사회상을 투영한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국립기록청의 고유 사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을 선별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에 다

음 장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 대상 선별을 위한 각국의 실제 전략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자기록 환경에서 국가적 차원의 평가체제 구축 방향을 가늠코자 한다.

3. 세계 각국의 영구보존기록 평가전략 분석

3.1 호주의 범정부 기능분석

2000년 4월 호주 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이하 NAA 약칭)은 e-permanence의 수립과 함께 평가에 대한 기능적 접근을 채택하게 된다. 이는 1980년대까지의 개별 기록에 대한 내용중심적 접근이 1990년대 들어 평가 상의 딜레마로 작용한데서 비롯된다(Reed 2003, 76). 평가에 대한 기능적 접근은 임의적인 가치기준을 기반으로 한 기록의 개별적 내용에 따른 선별을 지양하고, 기록이 생성된 기능적 맥락상의 중요도를 근거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상의 기능적 접근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기록물 처리에 대한 현실적 문제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내용 검토를 통한 선별은 전자기록 환경에서 대량의 기록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정확한 선별이 어렵기 때문이다(Schwirtlich 2002, 57). 또한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최근의 기록생산 환경에서 내용중심적 접근은 파편화된 내용만을 양

산하게 되며, 따라서 맥락을 반영한 선별을 위해서는 업무기능 및 프로세스 상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NAA 2003c, 6).

평가에 대한 기능적 접근은 호주 기록관리 표준인 AS 4390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AS 4390은 전자기록 환경에서 최선의 레코드키퍼링 실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수립한 표준으로, 컨티뉴엄을 토대로 생산 시부터 최종 보존 및 활용에 이르는 일관성 있는 기록관리 체제를 편제시킨다(Stephens & Roberts 1996). AS 4390에서는 기록 자체가 아닌 업무행위에 기반을 둔 기능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즉 조직의 업무적 필요, 설명책임성 요건 및 공동체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어떠한 기록물이 획득되어야 하며 아울러 얼마나 오래 이들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업무행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새롭게 평가를 재정의하고 있다(Roberts 1998, 9). AS 4390에서 구상하는 레코드키퍼링 체제는 업무와 기록의 매치를 위한 기능분석을 근간으로 하며, 이를 통해 도출된 기능분류 체계를 주축으로 기록의 통제단위 및 생산맥락 확보는 물론 기능상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평가와 연계시키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기능 기반 평가는 과거와 같은 분리된 업무단계가 아닌, 레코드키퍼링 전 과정에 걸친 유기적 절차로 자리하게 된다(McKemmish 1998).

전자기록 환경에서 새롭게 정비한 위와 같은 기능 기반 평가는 레코드키퍼링시스템 구축

방법론인 DIRKS의 A~C단계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아울러 업무적 필요, 설명책임성 및 법적 요건 준수에 필요한 기록물을 생산하고 유지할 책무를 각 기관에 부여하고 있으며, NAA에서는 각 기관의 이러한 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케 하고 있다(NAA 2003a).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 이러한 기능 기반 평가는 기본적으로 업무기능 분석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상의 맥락 속에서 현용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 기록물이 지닌 2차적 가치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파악이 어렵다. 호주에서도 기능에 기반을 둔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한 이래, 기관 차원의 기능적 접근으로 기관의 필요 기록 파악 및 기타 기록의 처분에는 실효를 거두었지만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중요 기록물 선별에는 일정 한계가 있었다(Cunningham & Oswald 2005, 164-165).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레코드키퍼링 체제와 연계된 기능 기반 평가의 조류 속에 NAA의 고유 사명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평가 전략이 수립되었다.

우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의 범주 설정이다. 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물을 선별하는 책무는 호주 연방기록법(The Archives Act 1983)에 명시된 NAA의 고유 사명 중 하나이다.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레코드키퍼링을 지원하고 각 기관의 처분지침을 최종적으로 승

인하는 역할 외에, 국가 영구보존기록물(National Archives)을 선별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사명이 그것이다(NAA 2003a). 이러한 사명의 수행을 위해 NAA는 기록물 각각의 내용에 따른 협소한 선별논리를 지양하고 다양한 맥락상에서 기록물이 지닌 기능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선별한다는 방침을 채택하였다(NAA 2003c, 7). 이를 위한 방안이 아래와 같은 국가 영구보존기록물 선별을 위한 5대 준거이다.

우선 국가 영구보존기록의 첫 번째 대상은 “호주의 통치에 관한 핵심 기능·프로그램 및 기타 중요사안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및 산하 기관들에 의해 수행된 협의·정책결정 및 행위 내역에 대한 정확한 증거”에 해당한다. 이 대상과 관련하여, NAA는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연관된 정책결정 및 활동에 대한 최선의 증거를 제공하는 기록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선별 대상에는 이러한 정책결정 및 활동의 배경과 아울러 그 결과를 문서화시킨 기록물들이 포함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대상은 신규 정책 내지 정책상의 변화가 수반되거나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차원과 관련된 기능 또는 범국가적으로 적용 내지 수행되는 기능상의 주요 결정사항이 해당하게 된다. 여기에는 이와 같은 행위의 배경과 그 목적을 수록하고 있는 기록물 및 정책·절차·전략의 수립과 같은 주요 결정사항을 수행하는 수단 및 방식과 관련된 기록 역시 포함되게 된다(NAA 2003c, 8, 15).

국가 영구보존기록의 선별 시 기능·프로그

램·사안 및 이와 연관된 정책결정과 활동의 중요도 판단은, 연방정부 및 연방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얼마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호주 및 전 세계에 대한 실질적 내지 잠재적 영향 정도를 근거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중요도의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경제적 여파, 환경적 영향, 사회적 파장, 국제적 반향, 정치적 법률적 파급효과 등으로, 이들 요소의 영향력의 여파가 크면 클수록 국가 영구보존 기록으로서의 중요도 역시 보다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도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기록물에 귀속되게 된다. NAA는 이와 같은 호주 및 호주 국민에 대한 통치와 관련된 대상은 연방기관의 실제 기능과 관련하여 볼 때, 정책 및 절차의 수립·결정·적용, 상위 정책으로부터의 거부 내지 방향성 전환,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감시 및 분석, 법령의 검토 및 적용·개발, 협상 및 상위 조약 내지 계약에 대한 위임, 협상 및 주 계약 내지 신규 계약에 대한 위임, 기관 및 기관의 기능에 대한 전략관리 등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들을 통해 생성된다고 제시하고 있다(NAA 2003c, 16).

두 번째 대상은 “연방정부 및 그 산하기관의 권위(authority), 설립근거 및 법령적 기제에 대한 증거”에 해당한다. 이 대상은 연방정부 및 연방기관들의 존립 근거와 더불어 법령적 기제·기능·의무 및 권한의 범위에 근거가 되는 공식적인 법령과 관련된다. 이러한 대상은 법령의 통과 및 공포, 연방기관 내지 그 산

하 주요 기구들의 설치 및 기능·조직구조의 승인, 연방기관 및 그 산하 주요 기구들의 기능 내지 조직구조의 변화 또는 해산의 승인, 의무 및 기능의 수행을 위한 법률적 권한의 위임, 권한의 범위 판정 등의 활동들을 통해 생성된 기록물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다(NAA 2003c, 8, 16-17).

세 번째 대상은 “호주 국민 및 그 생활환경의 보호와 더불어 번영을 위해 본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록물”에 해당된다. 이 대상은 계획 및 정책결정상의 연속성을 보장케 함과 더불어, 국민의 복지·안보·사회적 결속력 및 기타 환경 관리상의 지식을 전수해 주는 유일하면서도 필수적인 정보를 수록한 기록물에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기록물 및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은 미래 세대에 필수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대상은 환경오염 지역확인 및 감시, 행정적·사회적 관련성을 지닌 개인의 권리 내지 의무 확보, 질병의 전염 및 통제 등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 생성되게 된다(NAA 2003c, 9, 17).

네 번째 대상은 “호주 및 호주 국민들의 실상 및 현황, 호주 및 호주 국민에 대한 연방정부 활동의 영향,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과의 상호관계를 설명해주는 기록물”에 해당한다. 이 대상은 연방정부 주요 기능 및 프로그램의 수행내역 및 그 영향을 표상화 시켜주는 기록물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여 및 연방정부와 국민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말을 형상화시켜주는 기록물들이 포함되며,

아울러 개별적 사례와 관련하여 일상적 사례 및 특수한 사례를 제공해 주는 기록물 역시 해당된다.(NAA 2003c, 9, 18).

마지막 대상은 “호주의 역사·사회·문화 그리고 호주 국민에 관한 지식 및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기록물”이다. 이 대상은 앞선 범주와는 달리, 기록물의 중요성 및 활용성이 생산 본래의 기능적 맥락과는 별다른 상관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기록물이 연방정부의 활동과정에서 생산되어 그 활동 내역을 문서화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기능적 맥락 외에 다른 맥락에서도 그 활용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기능 수행상의 중요도와는 별도로, 역사적·사회적·예술적·과학적·연구적·기술적 중요도를 지닌 기록물 역시 국가 영구기록물로 선별하게 되며, 아울러 이러한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자는 물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NAA 2003c, 9, 19).

NAA에서 수립한 이와 같은 국가 영구보존 기록물의 범주는 종전 연구적 가치로 단순히 적용되어 온 선별준거를 대체할 목적으로 수립된 것으로(Kelly 2001, 80), 위의 범주 가운데 상위 4개 영역은 호주 및 호주 국민들을 통치하는 기능적 맥락과 관련된 것이며, 마지막 영역은 호주의 기타 맥락상에서 중요성을 지닌 기록물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영구보존기록물 대상 모두는 연방기관에 의해 수행된 활동내역 및 그 활동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적 기제들에 대한 적절한 설

명을 제공해야 함과 아울러, 해당 활동의 수행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활동에는 누가 참여하였으며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활동의 실상 및 결과는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밝혀 주어야 한다(NAA 2003c, 8).

이상과 같은 국가 영구보존기록물의 범주를 기반으로 기능 기반 평가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을 선별하기 위해 도입한 또 다른 방안이 ‘범정부 기능분석’(Whole-of-Government Functional Analysis)이다. 이는 국가적 견지에서 평가 틀 결여에 그 출발점을 둔다(Reed 2005, 186). 범정부 기능분석은 개별 기관별로 수행된 기능 기반 평가 상의 선별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NAA 2006a). 이는 그동안 개별 기관 수준에서의 기능분석을 확대하여 호주 정부에서 수행되는 가장 중요한 거시적 기능군을 파악한 다음, 이러한 기능군을 실제 수행하는 기관들을 매치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 기록물이 생성되는 지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NAA 2003b), 국가 영구보존기록물 선별을 위한 범주 대상 파악에도 일조하게 된다(NAA 2006a, 10).

범정부 기능분석은 NAA의 고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극적인 의지표명이라 할 수 있다. 어느 국가의 국립기록청과 마찬가지로, NAA 역시 현재 및 미래의 영구보존 기록물을 선별하여 전송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NAA 2003c, 1). 이와 같은 사명을 기반으로 NAA는 개별기관 차원에서 마련된 처분지침을

승인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 기반 평가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대상의 선별을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국가 영구보존기록을 파악하게 이관 받게 된다. 이를 위해 NAA는 기능 기반 평가 시 각 기관별로 파악된 해당 기록물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필요 기간을 수렴해 참조하며, 아울러 범정부 기능분석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국가 영구보존기록물 선별을 위해 광범위한 범주의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이션을 수행하게 된다(Schwirtlich 2002, 60).

범정부 기능분석은 계획적·체계적·상호 비교적으로 기록물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분석·파악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NAA 2003a). 여기서는 국가 영구보존기록물 선별방식으로 개별 기록 중심의 접근이 아닌 하향적(Top-down) 접근방식을 도입한다. 먼저 총체적 '사회' 활동의 전체적 윤곽을 분석한 다음 여기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최상위 기능으로부터 세부적 기능으로 하향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아울러 연구 및 컨설팅이션을 통해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확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영구보존기록 대상 범주가 결정되며,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책임을 지닌 기관 및 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특정 기능과 연관된 모든 업무기능 및 활동을 평가한 후 특정 기능의 실상을 가장 잘 제시해주는 '최선의 기록'(best records)을 확인함으로써 국가영구보존기록을 선별하게 된다(Cunning-

ham 2005). 이를 위해 NAA는 중요 기능들을 수행하는 기관들과 국가영구보존기록의 선별을 위해 또한 호주 정부의 중요 정책 및 정부와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최선의 증거 확보를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게 된다(NAA 2003b).

호주의 범정부 기능분석은 캐나다 및 네덜란드의 거시평가 방법론을 벤치마킹 한 것이지만 제도 자체의 독창성 역시 지니고 있다. 우선 기록물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연구 상의 이용률 역시 고려한다는 점이다(NAA 2006a). 연구 상의 이용률이 높은 기록물들을 확인한 다음 관련 기능에 매핑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시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기능 역시 파악하는 방식이다(NAA 2006b).

또한 방대한 연구 수행 역시 범정부 기능분석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최상의 중요도 내지 국민의 관심을 지닌 정부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범정부 기능분석에서는 부·처의 위계, 예산 규모 및 여론조사와 같은 지표를 연구함과 아울러 그 결과를 분석하게 된다. 평가를 위해 분석된 이러한 기초데이터를 '중요도 지표'(indicators of significance)라고 통칭하는데, 각 기능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NAA에서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기능들의 중요도 측정을 위해 9개의 기초데이터를 선정하였다(NAA 2003b). NAA에서 중요도 지표를 선정한 이유는 호주 정부의 기능 및 정부와 시민 공동체 간의 관계 파악에 명확한 청사진을 제공해 줌과 더불어, 기능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에 계량적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NAA 2003b). 이러한 중요도 지표를 기반으로 실제 NAA에서는 110여 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최상위 기능 및 그 하위 기능들을 도출한 다음, 각 데이터 유형의 결과들을 종합화하여 각 기능들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였다.

국가영구보존기록을 선별하기 위한 컨설팅이전 제도 역시 범정부 기능분석의 특징 중 하나이다. 2005년 NAA는 호주 정부에서 수행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 범주 파악을 위해 컨설팅이전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컨설팅이전에는 정부기관 업무담당자, 역사학자 및 기타 학문 분야 학자 등과 같은 이해당사자, 아키비스트 및 레코드키퍼 전문가, NAA 평가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정부 기능에 대한 조망 및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게 된다. 공동체 컨설팅이전을 활용한 평가방식은 평가 시 호주 국민의 요구 및 기대를 충족시킬 가능성을 제고시켜 줄 뿐만 아니라, 평가 절차상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NAA의 사업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 및 참여 역시 확대시켜 주는 강점을 지니게 된다(NAA 2003a).

이상과 같이 호주 NAA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범정부 기능분석은 개별 기록물 차원의 선별 논리를 넘어, 보다 넓은 전 정부적 시각에

서 평가 결정상의 체계성 및 일관성을 제공해 준다(Cunningham 2005, 2). 예전 NAA의 평가방식 하에서는 NAA의 가용자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영구기록물만을 양산한 상황에서(Schwirtlich, Anne-Marie 2002),¹⁾ 범정부 기능분석에서 채택한 하향식 접근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기록물을 평가할 수 있는 강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들이 여타 기능들과 분리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핵심적인 기능에서 생성된 기록물에 초점을 두어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기록물 처리가 가능하다는 발상이다(Piggott 2001). 이와 더불어 범정부 기능분석은 평가에 소요되는 자원 활용상의 경제적 효용성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영구보존기록물군의 결정을 위한 세부 가이드선 역할을 담당하며, 무엇보다 개별 기관 차원의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 국가적 견지에서 중요한 기록물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준다(Cunningham 2005, 2).

3.2 영국의 평가정책과 수집정책

영국의 전형적인 평가체제는 Jenkinson의 이론을 기반으로 수립된 그리그시스템에 토대를 둔다. James Grigg를 위원장으로 하는 Royal Commission on Departmental Re-

1) 기존의 평가방식을 수행해온 결과, 1998년 11월 현재 NAA는 250km에 이르는 영구보존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 NARA에서는 577km를 그리고 영국 PRO에서는 167km의 영구보존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단순 수치로는 미국 NARA에 비해 NAA의 영구보존 기록물의 양은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지만, 이를 국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인구 1인당 보유량으로 환산하면, NAA는 NARA의 약 5.5배, PRO의 약 5배에 달하는 것이다.

cords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공공기록물’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1958년 영국의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의 기초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30년 후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영국 국립기록청(The National Archives: 이하 TNA로 약칭)로 이관토록 하는 근거와 함께 50년 후 모든 공공기록물에 대한 공개열람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TNA, Appraisal Project Board 2004, 1-2).

기록의 증거성 및 불편부당성을 강조하는 Jenkinson의 생산자 중심 선별 논리에 미국 Schellenberg의 가치 개념은 그리그시스템 하의 평가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영국 공공기록법에 명시된 당시 PRO의 본원적 사명 중 하나는 레코드센터의 2차 점검(Review) 시 ‘역사적 가치’의 파악을 안내하는 역할이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에 일반적으로 수용된 Schellenberg의 2차적 가치 개념을 도입하여 2차 점검 시 영구보존 대상의 선별을 명료화시켰다(Simpson & Graham 2002, 52). 이를 기반으로 그리그시스템 하의 기본적인 평가체제는 두 단계의 절차로 구성되었다.

우선 1차 점검 단계에서는 5년 후 각 부처의 행정적 목적을 위한 기록물의 가치 판단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단서가 전제되는데, 이러한 가치 판단은 업무 종결 후 바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함께, 절차 내지 지침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기능 중심으로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 점검 25년

후에는 PRO의 감독 하에 2차 점검을 실시하는데, 각 부처의 기능 및 활동상의 중요도와 더불어 기록물 내용상의 증거적·정보적 중요도를 평가 시 투영시키게 된다. 기록물 내용상의 증거적·정보적 중요도 판단은 부처의 역사, 정책 및 법령의 수립·수행·해석, 유명 사건 내지 인물, 정치·경제·법률·사회적 역사 내에서의 주요 사건 내지 동향, 과학·기술·의학 적 연구 및 개발 등의 기준을 통해 이루어진다(TNA, Appraisal Project Board 2004, 2-3).

그러나 그리그시스템에 기반을 둔 평가체제는 최근의 기록생산 환경, 특히 전자기록 환경에 직면하여 그 한계를 드러낸다. 우선 기록물 생산량의 급증에 따른 문제점이다. 평가해야 할 기록물의 양이 급증한 상황에서, 개별 파일 단위로 수행되는 내용 검토를 통한 선별은 현실적인 가용자원의 한계상 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음은 개별 기록물에 대한 내용평가의 한계이다. 1차 및 2차 점검 과정을 통해 수행되는 개별 파일 단위의 상향식 선별방식은, 최근의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사회에서 전체 기록물에 대한 선별구조, 기록물 간의 연계관계 및 통합성을 형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선별 전략 적용이 난해해지며, 아울러 타 조직 간의 유기적인 평가체제 수립 역시 용이하지 않게 된다(Simpson & Graham 2002, 52-53).

하지만 무엇보다 전자기록의 보편화는 그리그시스템을 토대로 한 평가체제 동요의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전자기록이 지닌 특

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의 변화를 전제로 수행되는, 그리그시스템 평가 상의 시간적 격차를 허용치 않는다. 전자기록물의 물리적 속성 및 보존 문제 상, 행정적 가치 평가를 위해 5년을 그리고 역사적 가치 평가를 위해 25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기록물이 생성·유지되는 급속한 기술적 변화 및 폐기·변조·수정 등이 용이한 속성으로 인해 보다 빠른 시기의 평가가 요구되게 된다 (TNA, Appraisal Project Board 2004, 4).

전자기록물의 내용 점검 상에도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전자기록물은 사람의 눈으로 인지할 수 없는 바이너리코드로 기재된 관계상 하드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 없이는 내용 가독이 불가능하며,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전자기록물을 가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전자기록의 방대한 양을 감안할 때, 특정한 기한을 두고 개별 파일 별로 기록물의 내용을 검토하는 그리그시스템의 평가방식은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불가능하게 된다 (Mercer 2004, 4).

이러한 배경에서 1998년부터 기록관리체제를 정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그리그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평가체제 역시 재구축된다. 이는 TNA의 고유 사명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구보존 대상 선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집정책(Acquisition Policy) 개편 및 ‘하향적’(Top-down) 평가방식 도입이란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Simpson & Graham 2002,

53-54).

먼저 수집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은 사회 환경의 변모에 부응한 기록물이 지닌 연구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된다. 영국에서는 본디 강력한 지방자치적 특성으로 인해 상당수의 연구 기록물들이 전국 각지의 공공기록보존소에서 분산 보존되어 왔지만, 1958년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 제정을 기점으로 TNA는 정부 부처의 중요기록물을 선별하는 핵심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1954년 그리그위원회의 입안사항으로, 국가 자체, 특히 정부 최상위 부처의 행정적·정책적 과정을 반영하는 기록물을 TNA에서 선별해야 한다는 1950년대 영국 역사학계의 관점을 반영시킨 결과였다.

하지만 사회 환경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어 기록물의 연구적 가치를 판단하는 시각 역시 변화하였다. 즉 그동안 학계의 연구 동향 및 기록물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의 관심은 크게 변화되어 왔는데, 우선 과거와 달리 역사학 이외에 보다 광범위한 학문 분야에서 기록물을 연구에 활용되게 되었다. 또한 역사학 자체에서도 사회사, 미시사, 족보학 등 연구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결국 이전처럼 정부 부처의 행정적·정책적 과정을 제시하는 기록물만으로는 기록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국가와 개인 내지 공동체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기록물 역시 선별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상하였다(TNA 1999).

이에 1997년 TNA는 위와 같은 변화상을

반영시킨 수집정책 가안을 수립하였다. 1998년 1월 대학의 역사학 교수, 지방기록보존소 및 기타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수집정책 가안을 발송하여 대규모 컨설팅이션을 수행함과 더불어 가안을 웹상에 공개하여 일반 대중의 의견 역시 수렴하였다. 1998년 6월 30일 이러한 컨설팅이션을 종결한 후, 여기서 수렴된 의견들을 가안에 반영하여 최종 수집정책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서 결정된 수집정책의 골자가 바로 “운용선별정책”(Operational Selection Policies: 이하 OSPs로 약칭)이다.

OSPs는 국가 상에서 중요한 특정 사안 및 이슈와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처분에 적용하는 세부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Simpson & Graham 2002, 55). OSPs는 영구보존 기록선별 상의 지침 내지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집정책에 제시된 선별범주에 해당되는 기록의 확보를 가능케 해준다(Davies 2006, 7). 이러한 OSPs는 10년 주기로 학계의 연구동향 및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며 변경하게 되며, 아울러 현재 영국 정부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수집 및 선별 업무의 공개 및 참여 범위를 확대시킬 예정이다(유혜림 2007, 45-46).

이러한 OSPs를 기반으로 하는 TNA의 수집정책은 주제 내지 내용에 기반을 둔 개별 기

록물의 파편화된 수집을 지양한다. TNA는 수집정책의 전략적 목표를 “영국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및 행위를 기록함과 더불어,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 및 그 영향을 문서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연구 자원을 제공함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명시하면서, 세부적인 수집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TNA 2007, 2, 5-6).²⁾ 이러한 수집 범주는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그 하나는 국가 자체의 행정적·정책적 과정, 정책의 형성 및 수행과 관련된 범주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와 개인·공동체·기타 민간단체와의 상호작용 및 그 영향에 관한 범주라 할 수 있다.

평가체제 개편의 두 번째 방향인 하향적 평가방식 도입은 전자기록 환경에 대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4년까지 전자기록의 생산·유통체계를 완료할 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기록의 평가체제 역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Simpson & Graham 2002, 53). 일차적인 문제는 전자기록물의 평가 시기이다. 기존의 종이기록물에 비해 볼 때, 전자기록물이 지닌 저장매체의 불안정성 및 기술의 급속한 사양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및 신뢰성 유지 문제 등의 관계상, 전자기록물의 평가 시기는 그리그시스템 하의 평가 기간을 따르기 어렵게 된다.

2) 수집정책에서 제시하는 세부적 수집 범주는 다음과 같다. 1-1) 정부의 세입 세출 관리, 1-2) 대외관계 및 국가방위 정책, 1-3) 사법행정 및 치안유지, 1-4) 정부의 경제지원 정책 및 관계 규정, 1-5) 사회 문화정책의 수립 및 확산, 1-6)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 2-1) 개인·공동체·기타 민간단체를 통치하는 국가에 의해 문서화된, 영국의 경제적·사회적·인구 상황, 2-2) 이러한 환경에 대한 국가의 영향.

또한 전자기록이 지닌 기술적 특성 및 내용-구조-맥락의 분리성 관점에서 볼 때, 전자기록물의 영구보존 대상을 생산된 지 30년 후에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에 대비해, TNA에서는 평가정책(Appraisal Policy)을 수립하였다. 평가정책은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 특히 전자기록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2004년 5월부터 평가정책 가안에 대해 공공 컨설팅을 시행한 후 동년 8월 최종 평가정책을 확정하였다. 평가정책은 전자적 형태로 생성된 기록물의 평가 범주를 제공함과 아울러 평가에 소요되는 자원 활용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신규 평가 방식 고안, 가장 높은 보존가치를 지닌 기록물의 선별 보장,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통합된 평가방안 제공 등을 핵심 목표로 한다(Mercer 2004, 3-4).

평가정책에서는 평가의 목적을 기록의 체계적 처분을 통한 기록관리시스템의 효율성 담보와 함께 영구보존 대상의 선별 및 보존으로 정의내린다(Mercer 2004, 3). 이러한 정의와 연동하여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에 대한 대응 역시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현용상태의 전자기록에 대한 체계적 처분 강화이다. 이는 사전적 평가를 바탕으로, 현용적 가치를 지닌 대상을 한정시켜 관리 및 보존에 소요되는 자원을 집중시킨다는 전략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TNA 2002, 3-10). 이와 더불어

업무 내지 프로세스 지향적 접근을 채택하여 업무 및 조직 운영상의 필요를 기반으로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는 측면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거시평가(Macro-appraisal) 방식의 도입을 통한 영구보존 대상 선별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거시평가는 기록물의 가치를 개별 문서 내지 파일 단위에서 아닌 정부 차원·부처 수준 내지 기관 수준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록물의 업무가치 및 연구가치 분석을 위해 정부 전체 범주에서의 거시적 기능분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록은 업무과정의 산물로, 해당 기록이 왜 생산되었으며 어떠한 기능을 충족시키는지 측면보다 더 중요한 본원적인 가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연유에서 정부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정부 사업 및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하였는지를 정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평가의 본질이 되며, 아울러 기록의 선별 이전 조직 자체 및 조직이 지닌 전 정부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전제된다(Helen Mercer & TNA Inspection and Client Manager Unit 2006a, 4).

1990년대 캐나다에서 체계화된 거시평가를 영국에서 수용하는데에는 몇 가지 딜레마가 존재한다. 먼저 거시평가의 전제가 되는 거시적 기능분석에는 심도 있는 연구 작업이 필수적인 반면, 각 부처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점검자(Reviewer)들은 그리그시스템의 오랜 관행 속에 각 부처의 행정적 맥락 속에서 여전히 개

별적인 내용의 선별에 익숙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영국의 현 수집정책 및 처분정책 등에 반영되어 있는 역사학계 및 기타 학문 분야에서의 요구는 거시평가에서의 기능적 중요도 평가 이상의 것을 원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거시평가는 정부 기록 중 상당량을 차지하는 케이스파일 평가에 적용이 어렵다는 점 역시 딜레마로 작용한다. 케이스파일은 기록 속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기록 유형인 관계상 사례별로 개별적인 내용 검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TNA, Appraisal Project Board 2004, 6).

하지만 이러한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영국 TNA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영구보존 기록 선별을 위한 ‘기법’으로 도입한다. 거시평가의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이유는, 우선 내용-구조-맥락이 분리된 채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전자기록물 평가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파일 단위에 대한 개별적 내용 검토 없이 가장 중요한 기능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평가결정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회고적인 내용파악 없이 사전적인 기능 분석을 통해 평가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Mercer 2004, 5). 이와 함께 기록물의 내용 분석에 소요되는 방대한 인력 및 시간의 투입 없이, 정부 전 영역에 걸쳐 수행되는 기능의 상대적 중요도 판단을 통해 중요 기록물이 생성될 대강의 범주 파악 가능케 함과 더불어,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사회에서 모든 기록물의 가치를 전체 정부의 맥락에서 판

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TNA, Appraisal Project Board 2004, 7).

이러한 연유에서 TNA에서는 과거 개별적 내용에 기반을 둔 파일 단위의 평가를 지양하고 사전적인 기능 파악을 통해 평가를 수행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거시평가는 그리그시스템 하의 2차 점검 시 영구보존 대상으로서의 잠재성이 가장 높은 기록물들에 평가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게 된다(Helen Mercer & TNA Inspection and Client Manager Unit 2006b, 4). 하지만 TNA의 거시평가전략에는 평가 시 출처주의 원리를 중시하는 영국의 전통적인 관점 역시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독일의 Sante와 Rohr가 제시한 조직의 위계가 높을수록 기록의 가치 역시 높다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정부 내 차지하는 기관의 중요도에 따라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 역시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한 기관에서 선별될 기록의 양을 정부 내에서 해당 기관이 차지하는 역할 및 총체적 사회에 대한 영향력에 기반을 두고 결정하게 된다 (Helen Mercer & TNA Inspection and Client Manager Unit 2006a, 4-5).

이상과 같은 평가 및 수집제도 개편 방안은, 전자기록 환경 하에 영국 공공기록법에 명시된 TNA의 고유 사명을 강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수집정책 개편을 통해 내용에 기반을 둔 개별 기록물의 파편화된 수집을 지양하고 국가적 견지의 중요 기록

물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당대 사회상을 지지하는 기록을 선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자기록의 평가에 대비해 영구보존 대상 선별 상의 하향적 접근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구보존 대상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전자기록 환경에서 영국의 평가제도는, 과거 Jenkinson의 논지에 토대를 둔 평가에 대한 비판여주에서 적극적 관여주의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impson & Graham 2002, 51).

3.3 독일의 다기관협력 평가전략

개별적 내용 선별이 아닌 총체적 사회에서의 평가가 지닌 역할은 1970년대 Booms에 의해 논리적으로 제기된다. 현대 사회의 다원화 및 복잡화 경향 속에 독일의 연방기록청장인 Booms는 당대 사회에서의 평가 역할을 재조명한다. 그의 논의는 우선 사회와 기록 간의 상관관계에서 출발한다. 사회란 개념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구체적인 실체를 지니게 되며, 인간의 모든 활동 역시 이러한 실체 내에서 특정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기록물 각각의 절대적 가치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가치는 당대 사회 가치관의 투영일 뿐이다. 따라서 개별 기록물의 모든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며, 이러한 상대적 가치는 당대 사회현상의 구조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파악하다. 또한 기

록이 미래 어떠한 가치를 지닐 것인지는 현재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관계상, 현재의 기록을 미래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당대 정보세계를 규정하고 있는 가치체계 속에서 개관적인 평가방법론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서 당대의 주요 사회상을 정식화하는 다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의 구축이 제시되며, 이를 통해 다원적인 구조를 지닌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다양한 삶의 측면을 총체적으로 미래에 전달하는 것이 평가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Booms 1987, 69-107).

하지만 Booms의 논의는 이론적 차원에 머무를 뿐 구체적인 방법론으로까지는 개발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김익한 1998, 70). Booms 역시 1990년대 초반 부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사회상에 대한 구체적 준거를 제시하였다. 즉 기록물의 가치가 발현되는 사회적 가치는 초기의 주장대로 역동적인 사회상 및 여론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그 사회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기록물 생산자가 지닌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기록물과 다큐멘테이션을 연계시킬 수 있는 기록물을 생산케 한 기능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Booms 1991-1992, 25-33). 이러한 Booms의 평가론은 개별적인 기록의 내용에 따른 선별을 지양하고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기록이 지닌 의미 및 중요한 사회적 과정을 평가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Kolsrud 1992, 33), 이를 통해 포괄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된 평가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김현진 2006, 352).

Booms의 사고 이후 1990년대 중반 독일 기록학계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평가의 목적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평가에서 기록의 내용을 중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능-활동-처리행위에 대한 기능분석에 중점을 둔 기록의 증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Kretzschmar 2005, 219). 평가에서 기록의 증거성을 중시하는 입장은 전자기록 환경과 무관치 않다. 전자기록이 생산되는 다원적 업무 프로세스 하에서는 개별 기록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기록물에 대한 이해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전자기록에는 다원적인 생산맥락 및 구조들이 반영되어 있는 관계상 이 속에서만 해당 기록물의 본원적 의미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령·규정·업무기능 및 처리절차 등 기록물 생산과 관련된 증거들을 포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기록물 평가의 기본 전제로 되게 된다(Menne-Haritz 1994a, 534-536). 이러한 의미에서 평가는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과정을 명확하게 포착하는 행위로 새롭게 정의된다.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의 내용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내용을 뒷받침 하는 맥락을 복원시키는 것이 본원적인 임무임을 염두에 둘 때, 기록의 증거성은 평가의 수단이 아닌 평가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Menne-Haritz 1994b, 115-126). 특히 전자 환경에서의 업무체제는 다원적, 다변적, 수평적 성격을 지니

며, 아울러 여기서 생산되는 전자기록물에는 복합적인 조직적, 기능적 맥락 및 절차 정보가 내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기능 및 기능이 운용되는 절차에 대한 분석은 전자기록물의 생산배경 및 상호간의 유기성 창출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되며, 여기서 기능 및 절차에 대한 사전적 분석작업은 평가의 근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Menne-Haritz 2000, 74-81).

전자기록 환경에서 평가를 둘러싼 이러한 사조 속에, 1990년대 말 독일에서는 ‘다기관협력 평가’(Cooperative Cross-Archives Appraisal)가 평가 상의 조류를 형성하게 된다(Kretzschmar 2005, 222). 이는 독일의 여러 주립기록보존소에서 이론 및 방법론 면에서 그 효율성이 입증된 것으로, 위와 같은 논쟁의 절충점으로 내용지향적 평가와 평가상의 기능적 접근을 동시에 접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기관협력 평가는 종이기록 및 전자기록의 구분 없이, 유사 기능에서 생산된 기록은 다양한 아카이브 간의 협력 및 공조체제 위에 평가되어야 한다는 방식이다. 다기관협력 평가는 기본적으로 세 단계의 절차를 통해 수행되는데, 제일 먼저 기관 간의 협의를 진행한 후 체계적인 실제 기록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평가를 위해 협력한다는 발상이다. 여기에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개인 및 민간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결국 이를 통해 범국가적인 ‘집합적 평가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독일의 전통적인 출처주의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 독일 평가 담론에서 출처주의는 영구보존 대상의 선별 논리와 함께 생성 당시의 맥락 확보 차원에서 중시되어 왔다(김현진 2006, 345-351). 기록은 미래를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록이 지닌 증거성은 평가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출처주의는 기록의 조직화 논리를 넘어 생산 당시의 본원적 목적을 분석·보존시키는 도구로서 평가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Menne-Haritz 1994, 126). 다기관협력 평가에서도 모든 평가는 기록이 기원하는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출처주의를 강조한다. 평가 수행 시 기록의 목적·역할 및 활용되는 방식과 함께 왜 기록이 생산되었는지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따라서 평가는 기록이 기원하는 기능적 맥락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기록이 기원하는 곳에서 평가절차를 개시함으로써 기록의 기능적 기원 즉 맥락을 지닌 증거를 확보한 다음, 이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시켜 내용에 따른 사회의 아카이브를 형성시킨다는 전략이다(Kretzschmar 2005, 222-223).

이러한 사조의 결과는 독일 아키비스트협회에서 제정한 평가정책문(Position Paper)이라 할 수 있다. 평가정책문은 독일 아키비스트협회의 평가실무그룹에서 제정한 평가 수행 상의 실무지침서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2004년 10월 국가 차원의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여기서는 기능분석을 통해 사회 내에서의

생산자가 지닌 맥락 및 생산자의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기능이 지닌 생산자 맥락에서의 중요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다음, 이후 다기관협력 평가를 통해 각 아카이브별로 특정 시기의 특정 현상 및 전개 과정을 각기 분담하여 이를 문서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 영역 및 비정부 영역의 구분 없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동시대의 사회적 측면을 문서화시키게 된다(Kretzschmar 2005, 224-226).

이상과 같은 독일의 평가전략은 다양한 평가이론을 최근의 환경에 맞게 전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평가에서 사회상의 중요성과 함께 총체적 사회 속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의 기능상 중요도를 강조한 측면, 그리고 다기관 기능분석에 토대를 둔 하향식 접근법을 채택하는 논리는 캐나다의 거시평가전략과 유사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Craig 2004, 87). 결국 이러한 평가전략에서 각 기관의 업무행위에 대한 증거의 확보와 아울러 기관을 가로지르는 사회의 표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평가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된다고 할 수 있다.

3.4 캐나다의 거시평가전략

캐나다의 기록관리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국립기록청(Library and Archives Canada: 이하 LAC로 약칭)는 평가 상 두 가지 영역의 책임을 지니게 된다. 즉 한시 보존대상에 대한 기록처분지침(Records Disposition Authority

;이하 RDA로 약칭)을 승인하는 것과 함께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구보존 대상 선별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1966년 국가재정위원회(Treasury Board)의 'Public Records Order' 채택과 함께,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분지침을 수립한 다음 담당 아키비스트의 검토 후 승인되면 한시기록은 기관 자체에서 폐기하고 영구보존 대상은 국립기록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체제에서는 처분지침을 통한 평가는 대량의 케이스파일에 한해 이루어졌으며, 여전히 일부 아키비스트에 의해 Schellenberg의 평가 모형에 따른 평가 수행이 일반적이었다. 더욱이 PC의 보급으로 기록에 대한 기록관리자의 통제권이 약화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공공기록을 아우르는 평가는 수행되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1987년부터 새로운 평가 프로세스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평가는 예전의 행정적 절차에서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선별하는 '계획된 접근'으로 변모하게 되었다(Fortier 2005, 344-346).

이러한 과정 속에 개발된 거시평가는 기능을 통해 구체화되는 거시적 생산맥락을 평가의 근간으로 설정한다. 이는 기록물의 평가 시 생산자·사회구조 및 기능·생산과정이 기록물의 내용보다 중요하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기록물 자체는 가치의 근원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가치를 담는 그릇일 뿐이며, 생산된 당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기

록물이 지니게 되는 상징적 의미 및 향후에 나타날 잠재적 가치를 한정하는 것이 평가의 궁극적 목표로 규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시평가에서는 평가의 초점을 실제 기록물의 내용에 바탕을 둔 연구적 가치에서, 기록물이 생산된 기능적·구조적 환경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기록물이 생산된 생산맥락 및 출처정보 파악이 평가의 전제가 되며, 이는 상부구조로서의 조직체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는 하향식(top-down) 접근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실제 방법론은 국가를 정점으로 한 조직체를 사회상의 구체적 실체로 설정한 후 상부구조로서의 조직체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 전체 조직의 구조와 임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회적 중요도의 견지에서 기관별 서열화를 책정한 다음 이후 각 기관의 임무와 기능분석을 통해 기록물을 구조적으로 연계시키는 평가의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Bailey 1997, 89-99).

거시평가의 위와 같은 사고는 최근의 기록 생산 환경에서 기록의 가치는 기록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없다는데서 출발한다. 대신 당대 사회에서 평가가 지닌 사회적 역할에 대한 독일 Booms의 논지에 영향을 받아 사회적 가치(societal values)를 평가의 근간으로 삼는다(Loewen 2005, 94). 단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합의로 생성된 정부의 기능 및 프로그램, 특히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관계를 사회적가치의 구체적 실체로 상정한다. 이에 거시평가에서 기록의 사회적 가치를 결정

하는 세 가지 실체를 사회학 이론을 차용하여 정부 기관 및 업무자 등의 기록생산자 및 생산자가 시민을 대리하여 수행한 기능·프로그램·활동·처리행위를 의미하는 사회역사적 프로세스(social-historical processes), 그리고 정부 기능 및 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민·고객·소비자로 설정한다(Cook 2004, 8).

거시평가의 일반적인 수행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먼저 기능·서비스·프로그램·활동의 복잡성과 상대적 중요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절차이다. 여기서는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각 기관이 지닌 기능상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다음, 각 기관의 세부적인 기능 분석을 통해 OPI (Office of Interest)를 파악하게 된다(Cook 2001b). OPI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수립하는 등 기관의 고유 사명을 수행하는 핵심 부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OPI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이 집중적으로 생성되는 연원으로서의 의미 또한 함축하고 있다. 이어 위의 절차들을 통해 확인된 중요 기능과 시민사회 영역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며, 거시평가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제 기록의 가치분석을 통해 입증하는 단계로 마무리된다(Cook 2001a).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거시적 기능분석으로 평가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위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상징적·심미적·정보적 가치를 지닌 요소와 더불어 마이그레이션·보존비용 요소 등 미시적 평가 요소 역시 고려하게

된다(Cook 2004, 12). 이러한 거시평가 방식은 정부기록처분지침 프로그램(Government Records Authority Disposition Program: 이하 GRAD로 약칭)을 통해 세부적으로 수행되어, 기능상의 중요도에 기반을 둔 실제 평가 및 처분지침 수립이 이루어지게 된다(나영선 2007).

이처럼 거시평가에서 기록이 생성된 연원이라 할 수 있는 총체적 사회 내의 기능을 평가의 단서로 설정한 이유는 방대한 양의 기록물에 직면하여 개별 기록물에 대한 가치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요한 것은 최근 조직의 다원화 및 복잡화 경향 속에 개별 기록물의 내용에 따른 선별은 파편화된 내용만을 남긴다는 점에서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사회상의 가장 구체적인 실체인 정부의 기능에 평가 상의 초점을 두게 되는데, 이는 정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총체적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합의로 생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요구·사회적 경향·사상·활동 등의 거울이자 여과장치인 관계상 사회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록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Appraisal'라 한다면 보다 넓은 기능 영역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Macro-Appraisal"이라 할 수 있게 된다(Cook 2004, 9-10).

거시평가에서의 기능은 상대적 중요도 상의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석된다. 거시적 기능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은 먼저 기

능 내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규정 및 정책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기능과 연관된 법률·규정·정책의 수 및 복잡성을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기능 및 프로그램이 해당 기관·정부·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며, 해당 기능과 관련된 직원 및 부서 단위의 수와 더불어 여기에 할당된 예산 규모 역시 기능의 중요도 판단에 활용된다. 이외 기능 수행 상의 독립성 및 자치성의 정도, 시민 영역과의 상호작용 수준 등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해당 기능의 성격 및 범위, 정부 운영에서 차지하는 위치, 타 기능에 대한 영향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 관계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결정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능상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은 방대한 사전 연구를 통해 수행된다. 이러한 사전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각 기관이 지닌 기능의 중요도를 분석한 다음 기관 내의 핵심 기능을 분석하는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 거시평가 수행을 위한 사전적 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기록처분 범정부계획(Government-Wide Plan for Disposition of Records: 이하 GWP로 약칭)의 수립이다. GWP는 기록 처분 승인을 받기 위한 기관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으로, 환언하면 각 기관의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LAC가 교섭하게 되는 기관의 우선순위를 책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LAC 2000). 우선순위의 책정은 총 14가지의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데 각 기준별로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해 결정하게 되

며(나영선 2007, 21-27), 이를 통해 캐나다 정부 차원의 기관별 상대적 중요도가 책정된다.

LAC와 각 기관 간의 고유처분지침 수립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로 약칭) 체결 단계에서도 해당 기관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가 수행된다. MOU는 각 기관의 처분지침 개발을 위한 사전적인 처분지침 개발 협정안 성격으로, MOU의 내용은 LAC의 평가정책을 준거로 아키비스트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기반을 두게 된다. 이를 위해 MOU의 개발 전 담당 아키비스트는 해당 기관의 담당 실무자의 협조 속에, 기관의 역사·규정 및 기능·조직구조·정부기관 및 캐나다 사회와 관련하여 해당 기능 및 프로그램이 지닌 중요도 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기관 내 향후 평가될 기능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이에 더해 기관 및 기록의 복합성, 평가 및 이관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 기록의 보존 및 보존 처리상의 필요성 등도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LAC 2004b, 3-5).

이와 더불어 GWP 및 MOU 과정에서의 평가를 위한 방대한 사전연구는 GRAD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자원 체크리스트(Checklist of Sources)를 통해 뒷받침된다. 이 체크리스트는 크게 정부 행정조직에 관한 정보, 기록처분지침 수립에 필요한 정보 및 전자기록 등 기타 매체의 기록처분에 필요한 정보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각 정보가 위치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소장 위치정보까지 제공되어 있어, 거시평가를 위한 사전 연구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LAC 2004a, 1-20).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수행되는 거시평가의 궁극적 목표는 당대의 사회상을 기록을 통해 형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LAC는 이러한 캐나다 사회의 역사적 기억을 선별하여 보존하기 위해 거시평가를 통해 선별해야 할 국가적 중요도를 지닌 기록군의 범주를 선정하였다. 우선 가장 근원적인 목표는 캐나다 정부의 주권 확립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록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수립 및 결정 등에 관련된 기록물을 선별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의 정책·의사결정·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보존하는 것이며, 캐나다 국민과 단체들에 대한 정부 정책의 영향 및 정부와 국민과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기록물 역시 선별·보존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캐나다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이들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기록을 선별·보존하는 것이며, 캐나다의 역사·사회·문화 및 국민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 또한 국가적 중요도를 지닌 기록군의 범주이다(Brown 2001). 거시평가를 통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군의 선별은 결국 아키비스트를 과거와 같은 신성한 증거의 수호자 내지 향후의 이용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단순 선별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당대의 사회상

을 반영한 기록유산의 구축자로서 자리매김시킨다(Fortier 2005, 359).

이상과 같이 살핀 거시평가전략은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기록생산 환경 하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영구보존 기록물을 계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선별하려는 캐나다 LAC의 적극적 의지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예전과 같은 일정 기준에 근거한 분산화 된 임의적 평가를 지양하고, 총체적인 사회 기능에 대한 사전연구를 기반으로 중요 기능에서 국가적 차원의 핵심 기록을 계획적이면서도 선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사회 속에 개별 기록물의 선별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기록 생산의 전체적인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 속에 평가 수행을 가능케 해준다(Bailey 1997, 110-115). 또한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 대상을 원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임의적인 가치 기준에 기반을 둔 개별 기록의 선별은 연구자 및 이용자의 시각에 따라 해당 기록의 가치판단이 천차만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평가는 미래의 이용적 가치를 현재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위험성을 배제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미 생성된 기록을 대상으로 가치를 판별하는 수동적 입장에서 향후 생성되어야 할 기록군의 범주를 설정하는 능동적 입장으로 전환케 해준다(Beaven 1999, 177-179).

하지만 거시평가의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역시 존재한다. 무엇보다 거시적인

건지에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기록의 개별적 가치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거시평가는 평가 상의 강조점을 기록물 자체로부터 기록물의 생산맥락으로 이전시켰지만 최종적으로는 기록물 자체에 대한 점검 절차를 지닌다. 즉 평가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실제 기록물의 가치 검토를 통해 거시평가의 전제가 되는 연구 내지 가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기록물이 지닌 개별적 가치와 함께, 해당 기능을 포괄적으로 문서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록물이 얼마만큼 선별되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Cook 2001a). 하지만 거시평가 내에서의 미시평가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Beaven 1999, 179). 모든 기록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가치를 지니며 또한 미래에 나타날 잠재적 가치를 예견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록이 지닌 미시적 가치 부분은 거시평가에서 가장 난해한 영역으로 자리하며, 현재로서는 국가적 중요성이라는 시각 차원에서만 미시적 가치를 한정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Cook 2001b).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평가는 현재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Loewen 2005, 93). 구체적 운용 및 적용방식에서는 각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지만, 거시평가가 지닌 이론적 적정성은 최근 기록생산 환경에서의 평가 논리로 설득력

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시평가를 주축으로, 캐나다에서는 이원적 구도의 평가가 수행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Fortier 2005, 344). 우선 각 기관의 책임 하에 자체 내의 운영적 필요를 위한 기록의 현용적 가치를 평가하는 처분지침 수립이다. 이는 기관의 영위 내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적 필요 및 법적·규정적 요건의 준수, 그리고 거버넌스 환경에서 정부의 업무수행 내역에 대한 설명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기록은 기관 자체적으로 처분지침 수립 과정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실제 지난 1989년 캐나다 국가재정위원회(Treasury Board)에서 제정한 Treasury Board Policy on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Information Holdings에서는 정책 결정 및 수행, 업무처리와 관련된 업무적 필요성을 지닌 기록물과 더불어, 각종 법 및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록물의 유지책임을 각 기관에 위임하고 있다(Brown 2001).

한편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구보존 대상 기록물의 선별 및 보존은 LAC의 책임이 된다. 거시평가는 바로 이러한 영구보존 대상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선별하려는 LAC의 평가전략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캐나다 기록관리법에서는 각 기관 처분지침을 승인하는 것 역시 LAC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각 기관에서 부여한 보유기간 전체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영구보존 대상으로 이관 받을 기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LAC 2005). 왜냐하면 각 기관

의 처분지침 수립과는 상관없이 거시평가를 통해 영구보존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기록의 선별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시평가는 각 기관별 처분지침을 통한 선별 논리로 불가능한, 국가 전체의 견지에서 분석된 총체적 사회상에 관한 기록군의 선별을 가능케 해준다.

4. 우리나라 평가제도 개선방향을 위한 제언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각국의 국립기록청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영구보존기록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평가전략들은 국립기록청의 고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립기록청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대상을 후대에 전승하는 것이 궁극적 사명임을 염두에 둘 때, 과거와 같은 수동적인 증거의 보관자 역할을 넘어 국가의 집단기억 형성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을 적극적으로 선별하는 책임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Millar 2004, 6-7).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국가 및 사회는 더욱 다원화되고 복잡한 메커니즘 하에 영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대한 양의 기록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의 목표 및 방향을 정립함과 아울러 평가에 대한

체계적·계획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각국에서는 임의적인 가치기준이 아닌, 당대의 국가 및 사회상을 투영한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6년 전자기록 환경에 대비한 국가 기록관리 혁신과정에서 평가체제를 개편하였다. 종전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기반을 평가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능분류체계(Business Reference Model: 이하 BRM 약칭)를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대신할 기록분류체계로 설정한 후, BRM상의 단위과제에 기록관리법 시행령에 제시된 보존기간 책정기준을 참조하여 보존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단위과제에 대한 보존기간 책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연유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종전의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보존기간 책정방식에서는 동일 단위업무 내의 기록물철에서 서로 다른 보존기간이 책정되어 상이한 방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의도이다(국가기록원, LG CNS 컨소시엄 2006, 82, 85, 93). 이와 아울러 단위과제가 업무간의 유사성 및 독자성을 고려하여 절차별로 세분화한 최하 단위의 기능임을 감안할 때, 해당 단위과제에서 생성된 기록의 보존가치 역시 단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다(국가기록원 2006a, 7).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은 기능의 성격에

따라 책정방식을 달리하게 된다. 각 기관의 모든 처리과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처리과 공통업무’와 기관 단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설치된 부서의 업무인 ‘기관 공통업무’의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이 보존기간 책정의 책임을 맡아 공통업무 보존기간표를 제정하게 되며, BRM 관리부서에서 규정한 공통업무에는 국가기록원이 제정한 공통업무 보존기간표의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국가기록원 2007).³⁾ 이에 반해 기관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고유업무의 경우, 보존기간 책정의 주체는 업무의 처리과정 중에서 기록물을 생산하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현행 기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설정·시행하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기록관리법 시행령 25조 3항. 이를 근거로 고유업무의 보존기간은 각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본임 담당 단위과제 확인 후 단위과제별로 보존기간을 책정토록 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06b, 3, 5). 단 이러한 책정은 기록관리법 시행령 상의 <별표 1>에 제시된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을 참고하여 수행하게 된다(국가기록원 2007, 9).

이와 같은 현행 평가체제 및 방식은 예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하여 개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가치평가 측면에서는 종전의 기록물분류 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방식과 질적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 현행 기록관리법 시행령에서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책정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행령에 보존기간 책정 기준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책정 기준을 근거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일정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일반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실제 적용에서 주관성 및 편차를 배제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다(김명훈, 현종철 2007, 5).

시행령의 개정과정에서 보존기간 책정기준을 예전보다 다소 상세화 시킨 측면은 있지만, 일반적인 문구로 설명되어 있는 기준을 각 기관의 구체적인 고유업무에 적용하는데서 파생될 주관성 및 편차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영구보존 대상을 업무수행 및 국민의 권리·의무·신분의 증명, 국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과 같은 일반적 기준을 근거로 선별하는 것은 그동안 비판을 받아 온 분류학적 가치구분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또한 기록물의 가치를 1·3·5·10·30년 등 고정된 연한으로 한정짓는 것 역시 문제이다. 물론 고정된 연한으로 보존기간을 한정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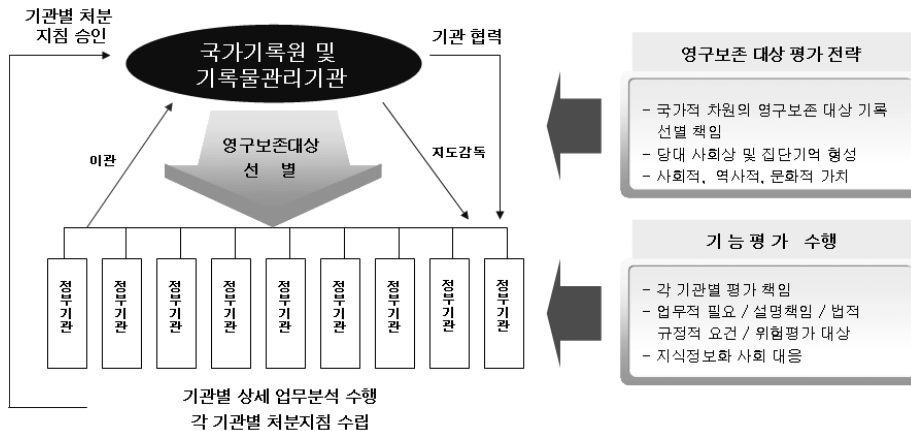
3) 기관 공통업무는 각 기관의 규모 및 업무 관행 등에 준하여 변형시켜 적용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보존기간의 적정성을 협의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

것은 기록물 처분 상의 시기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점을 지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해당 기록물이 지닌 구체적인 가치의 파악이 어렵다. 가령 보존기간 5년의 가치 기준은 업무에 참고하거나 관련 법령을 근거로 또는 기타 이유로 3년 이상 5년 미만의 보존할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30년이나 10년, 3년의 가치 기준 역시 해당 년수 미만 하위 년수 이상의 보존할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호한 가치 기준을 근거로 획일화된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 온 내용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미시적 평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평가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 선별을 위한 별도의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국가 및 사회는 더욱 다원화되고 복잡한 메커니즘 하에 영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파편화된 내용 선별을 지양하고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미래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 상의 체계적·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각국의 영구보존 대상 선별에서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회의 다양화 및 복잡화 경향과 맞물려 기록물의 개별적 내용만으로는 선별이 무의미하다는데 있다. 기록은 특정 환경과 일정 의미를 함축하며 연계된 다큐멘테이션으로, 따라서 기록은 맥락과 분리된 개별적 내용으로는 그 의미 및 역할

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Hurley 2004, 6). 기층으로부터의 다양한 생활상의 이해를 추구하는 사회사 동향 역시 사회상을 증시케 하는 원인이다(Nesmith 1982, 5-26). 이는 개별적인 내용이 아닌 기록의 통합성 및 상호연계성을 증시함과 아울러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기록의 이용을 촉진시키며, 기록의 내용에 앞서 기록이 생성된 사회적·환경적 맥락을 강조하기 때문이다(Eastwood 1982, 3). 바로 이러한 점에서 최근 세계 각국의 영구보존 대상 선별은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재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거시적 관점을 통해 평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형성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 대상 평가전략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시행령상의 보존기간 책정기준을 근거로 한 영구보존 대상 선별방식은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 형성과는 거리가 먼, 파편화된 단위과제들의 산술적 조합만을 양산시키기 때문이다. 기록은 특정 환경과 일정 의미를 함축하며 연계된 사회적 행위의 산물로, 그 내용 자체로 가치가 있기 보다는 총체적 사회 내에서의 의미를 지닐 때 보다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 선별을 위해 별도의 평가전략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형성시킬 수 있는 영구보존 대상을 계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영



〈그림 1〉 전자기록 환경 하의 이원적 공공기록 평가체제 모형

구보존 대상의 보존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기록원 및 기록물관리기관 역시 국가적 차원의 중요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평가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고유 사명이 국가적 중요기록물의 후대 전승이라면, 책정된 보존기간을 승인하는 수준으로는 스스로에 부여된 역사적 설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기록원 및 기록물관리기관은 종래와 같은 중립적·객관적인 보관자로서의 입장을 넘어, 업무 및 사회상을 증거로서 획득함과 아울러 사회의 집단기억 및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적극적 선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평가체제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이원적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현행 평가방식은 맥락 및 기록품질을 지닌 전자기록의 선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에

서의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떠한 대상을 왜 선별하는가란 평가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철학은 부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원적 평가체제는 그동안 보존기간 책정기준을 근거로 수행해 온 평가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이 지닌 일차적 가치와 이차적 가치가 조화된 평가 수행을 가능케 해준다. 즉 각 기관 차원에서는 조직을 둘러싼 제반 환경 및 업무분석을 통해, 조직의 영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록의 현용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함과 아울러 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지침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업무적 필요, 설명책임, 법적 규정적 요건 등 각 기관 차원의 현용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록을 선별함으로써, 업무상의 실익 및 적재적시의 기록 처분과 함께 현용기록관리 기반을 강화시키게 된다. 제반 환경 및 업무분석에 기반을 둔 이

러한 평가의 책임은 각 기관 스스로에 할당되는 것으로, 이는 곧 각 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록의 선별은 기관 자체적으로 궁극적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항구적 보존대상의 선별 및 보존책임을 담당하는 국가기록원과 기록물 관리기관에서는 이러한 기관 차원의 평가와는 별도의 평가전략을 수행하게 된다. 기관 차원의 기능평가가 지닌 한계로 지적되는 사회적 내지 문화적 가치의 선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각 기관의 처분지침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구보존 대상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사회 속에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형성시킬 수 있는 영구보존 대상을, 계획적이면서도 체계적 선별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원적 평가체계는 기존의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근거한 획일적이면서도 파편화된 기록의 선별을 지양하고, 국가적 견지에서 현용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기록의 선별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3·5·10·30년으로 획일화된 모호한 보존기간 책정 대신, 기관의 영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록을 제반 환경 및 업무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록의 현용적 가치 선별을 강화시키게 된다. 아울러 단위과제 수준의 파편화된 영구보존 대상 선

별을 방지하고, 명확한 평가 목표 및 방향성 정립 위에 체계적·계획적으로 선별케 함으로써, 당대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형성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전자기록 환경에서 증거의 확보 문제와 연동되어 수행되는 기능평가의 한계를 보완해 줌으로써, 종국적으로 각 기관 차원의 현용적 가치와 국가 차원의 사회문화적 가치가 조화를 이룬 범국가적 평가체계를 이루게 한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는 예전의 종이기록 환경 하의 평가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특성을 지니지만, 업무의 행위내역을 고스란히 반영한 증거의 확보가 평가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기능평가를 일반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필연적인 평가방식으로 자리하는 기능평가는 각 조직 차원의 현용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준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역사적 가치·문화적 가치·사회적 가치 등을 지닌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기록을 선별하는 방식으로는 적절치 않은 한계를 지닌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기능평가와는 별도의 평가전략 마련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며,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기록 선별을 위해 자국 상황에 맞는 평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호주 NAA에서는 기능평가와는 별도

로 범정부 기능분석을 통해 국가적 견지에서 중요한 기록물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전자기록 환경 하에 대비하기 위해 수집 및 평가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과거 Jenkinson의 논지에 토대를 둔 평가에 대한 비관여주의에서 적극적 관여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다기관협력 평가를 통해 당대 사회상을 형성시키기 위한 범국가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캐나다에서는 거시평가전략을 통해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기록생산 환경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영구보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평가제도 역시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되었지만, 중요기록물의 선별방식은 종전의 기록물분류 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방식과 질적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 최근 국가 및 사회가 다원화·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 상의 일반적인 가치 기준을 근거로 획일화된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것은, 파편화된 개별 단위과제의 양산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미래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기록을 선별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제시치 않았다. 이 한편의 논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없으며, 향후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영구보존 대상을 체계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의 범주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록을 통해 형성시킬 수 있도록 관련 학계 및 기록관리 실무기관 간의 협력기반 역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자기록의 체계적인 수집 방안에 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최근의 거버넌스 환경에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생성된 기록물의 조화를 통해서만 동시대의 사회상 재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기록의 평가가 공공영역에서 생성된 중요기록물을 선별해 체계적으로 이관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수집은 민간영역에서 생성된 중요기록물의 확보를 가능케 함으로써 평가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약속하며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2006. LG CNS 컨소시엄. 『기록관리시스템 혁신 ISP사업 최종결과보고서 : 2. 추진과제별 개선모델 설계-2.2 기록관리 항목 관리방안』.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06a. 『업무 및 기록분류체계 통합에 의한 기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표 및 기록물보존업무처리기준표 작성 방안. 기록물 보존업무 처리기준표 작성: 2006.

6. 27 중앙행정기관 자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2006b. 『업무 및 기록분류체계 통합에 의한 기관별 업무 및 기록분류표 작성 방안. 국가기록원 평가자문회의 자료』.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07.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조정 지침』. 국가기록원.
- 김명훈, 현종철. 2007. 매뉴스크립트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기록학회 발표문.
- 김명훈. 2005a.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1.
- 김명훈. 2005b. 전자기록물의 평가에 관한 기반 연구. 『기록보존』, 18: 135-137.
- 김명훈. 2006. ISO 15489를 기반으로 한 전자기록 평가모형 설계. 미발표논문.
- 김익한. 1998. 기록물 관리체제론 및 평가분류의 새로운 흐름. 『기록보존』, 11.
- 김현진. 2006. 독일 기록관리 담론에서의 평가론. 『기록학연구』, 14.
- 나영선. 2007. 『캐나다 거시평가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유혜림. 2007. 『전자기록 환경의 도래와 영국 평가·수집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 Australian Government & NAA. 2005. Provisional Macro-appraisal Rankings of the Functions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1975-2004. NAA. [cited 2005.6.16].
<http://www.naa.gov.au/recordkeeping/disposal/appraisal/provisional_rankings.pdf>.
- Bailey, Catherine. 1997. "From the Top Down: The Practice of Macro-appraisal." *Archivaria*, 43.
- Bantin, Philip C. 1999. "Strategies for Managing Electronic Records: A New Archival Paradigm? An Affirmation of Our Archival Traditions?" *Archival Issues*. [cited 2008.5.11].
<<http://www.indiana.edu/~libarch/ER/macpaper12.pdf>>.
- Beaven, Brian P. N. 1999. "Macro-appraisal : From Theory to Practice." *Archivaria*, .48.
- Booms, Hans. 1987.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 Booms, Hans. 1991-1992. "Überlieferungs bildung: Keeping Archives as a Social and Political Activity." *Archivaria*, 33.
- Brown, Richard. 2001. "Preserving the Archival and Historical Memory of Government." [cited 2008.4.16].
<<http://www.collectionscanada.gc.ca/information-management/007>>.

- /007007-1042-e.html).
- Cook, Terry. 2001a. "Appraisal Methodology: Macro – 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 Part A: Concepts and Theory." [cited 2005,12,7]. <<http://www.collectionscanada.gc.ca/information-management/007/007007-1035-e.html>>.
- Cook, Terry. 2001b. "Appraisal Methodology: Macro – 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 Part B: Guidelines for Performing an Archival Appraisal on Government Records." [cited 2005,12,7]. <<http://www.collectionscanada.gc.ca/information-management/007/007007-1041-e.html>>.
- Cook, Terry. 2004.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Documenting Governance rather than Government." *Journal of Society of Archivists*, 25(1).
- Cook, Terry. 2005. "Macroappraisal in Theory and Practice : Origins, Characteristics, and Implementation in Canada, 1950-2000." *Archival Science*, 5(2-4).
- Craig, Barbara. 2004. *Archival Appraisal: Theory and Practice*. München: K.G. Saur.
- Cunningham, Adrian & Oswald, Robyn. 2005. "Some Functions are More Equal than Others: The Development of a Macroappraisal Strategy for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Archival Science*, 5(2-4).
- Cunningham, Adrian. 2005. "Some Functions Are More Equal than Others: The National Archives' Macro-Appraisal Project." [cited 2007,2,13]. <http://www.naa.gov.au/images/cunninghamjul05_tcm2-4903.pdf>.
- Davies, Howard. 2006. "Selection Policies for All: The Advent of Generic Operational Selection Policies for Use across Government." *Record Keeping* 8. [cited 2007,8,22]. <<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spring2006.pdf>>.
- Eastwood, Terry. 1982. "Archives and Social History." *Archivaria*, 14.
- Fortier, Normand. 2005. "Transparency, Compliance, and Accountability : Developing a Knowledge Infrastructure for Macroappraisal at Library and Archives Canada." *Archival Science*, 5(2-4).
- Hurley, Chris. 2004. "What, If Anything, Is Records Management?." RMAA Conference Paper. [cited 2007,4,15].

- <<http://www.sims.monash.edu.au/research/rcrg/publications/ch-what.pdf>>.
- Kelly, Russell. 2001.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s New Approach to Appraisal." *Archives and Manuscripts*, 29(1).
- Kolsrud, Ole. 1992. "The Evolution of Basic Appraisal Principles: Some Comparative Observations." *American Archivists*, 55(1).
- Kretzschmar, Robert. 2005. "Archival Appraisal in Germany: A Decade of Theory, Strategies, and Practices." *Archival Science*, 5(2-4).
- Laberge, Danielle. 1987. "Information, Knowledge, and Rights: The Preservation of Archives as a Political and Social Issue." *Archivaria*, 25.
- LAC. 2000. "Government-Wide Plan for Disposition of Records, Version 5: 1999." <<http://www.collectionscanada.gc.ca/information-management/0625/0625.html>>.
- LAC. 2004a. "Checklist of Sources to Support Research for the GRAD Program." (미간행자료). LAC.
- LAC. 2004b. "Guide to Research in Support of Developing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for the Disposition of Government Records." (미간행자료). LAC.
- LAC. 2005. "Multi-Institutional Disposition Authorities." [cited 2006.11.30]. <<http://www.collectionscanada.gc.ca/information-management/007/007007-1008-e.html>>.
- Loewen, Candace. 2005a. "The Evolution, Application, and Future of Macro appraisal." *Archival Science*, 5(2-4).
- Loewen, Candace. 2005b. "Accounting for Macroappraisal at Library and Archives Canada: From Disposition to Acquisition and Accessibility." *Archival Science*, 5(2-4).
- Man, Elizabeth. 2005. "A Functional Approach to Appraisal and Retention Scheduling." *Records Management Journal*, 15(1).
- McKemmish, Sue. 1998. "The Smoking Gun: Recordkeeping and Accountability." [cited 2007.5.18]. <<http://www.sims.monash.edu.au/research/rcrg/publications/records-continuum/smoking.html>>.
- Menne-Haritz, Angelika. 1994a. "Appraisal or Documentation: Can We Appraise Archives by Selecting Content?" *American Archivist*, 57(2).

- Menne-Haritz, Angelika. 1994b. "Appraisal or Selection-Can a Content Oriented Appraisal be Harmonized with the Principle of Provenance?" The Principle of Provenance: First Stockholm Conference on Archival Theory and the Principle of Provenance 2-3 sept 1993. Stockholm: Swedish National Archives.
- Menne-Haritz, Angelika. 1999. "Appraisal and Disposal of Electronic Records and the Principle of Provenance: Appraisal for Access-Not for Oblivion." Principles of Appraisal and Their Application in Electronic Environment : European Models and Concepts. [cited 2007.8.14]. <<http://www.narcfi/dlm>>.
- Mercer, Helen & TNA Inspection and Client Manager Unit. 2006a. How to Compile an Appraisal Report(version 2). TNA. [cited 2007.10.18]. <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appraisal_report_v2.pdf>.
- Mercer, Helen & TNA Inspection and Client Manager Unit. 2006b. Preparation for Undertaking Review of Paper Records(version 2). TNA. [cited 2007.10.18]. <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preparation_paper_review.pdf>.
- Mercer, Helen. 2004. Appraisal Policy (version 1). TNA. [cited 2007.10.18]. <http://www.nationalarchives.gov.uk/recordsmanagement/selection/pdf/appraisal_policy.pdf>.
- Millar, Laura. 2004. "Evidence, Memory, and Knowledge :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Archives."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rchives. [cited 2006.1.31]. <http://www.wien2004.ica.org/imagesUpload/pres_166_MILLAR_ZMIL01.pdf>.
- Mills, Tom. 2005. "Strategic Approaches to Appraisal." Manual on Appraisal (Draft): A Practical Guide for the Daily Problems of Appraising and Selecting Documents. ICA/CAP.
- NAA. 2003a. Appraisal. NAA. <<http://www.naa.gov.au/recordkeeping/disposal/appraisal/intro.html>>.
- NAA. 2003b. Macro-Appraisal(Revisions). NAA. [cited 2005.6.16]. <<http://www.naa.gov.au/recordkeeping/disposal/appraisal/macro-appraisal.html>>.
- NAA. 2003c. Why Records are Kept: Directions in Appraisal(Revisions).

- NAA, [cited 2005.6.16].
 <http://www.naa.gov.au/Images/Why%20records%20are%20kept%5B1%5D_tcm2-4856.pdf>.
- NAA, 2006a. "Macro-appraisal Project: Results of Consultation," [cited 2005.6.16].
 <<http://www.naa.gov.au/recordkeeping/disposal/appraisal/Macro-appraisalreport.html>>.
- NAA, 2006b. Whole-of-Government Functional Analysis :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Functions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1975-2005. NAA.
- Nesmith, Tom, 1982. "Archives from the Bottom Up: Social History and Archival Scholarship." *Archivaria*, 14.
- Piggott, Michael. 2001. "Appraisal: The State of the Art." ASA South Australia Branch Workshop Paper. [cited 2005.6.18].
 <<http://www.archivists.org.au/sem/misc/piggott.html>>.
- Reed, Barbara, 2003. "Diverse Influence: An Exploration of Australian Appraisal Practice-Part I." *Archives and Manuscripts*, 31(1).
- Reed, Barbara, 2005. "Beyond Perceived Boundaries: Imagining the Potential of Pluralised Recordkeeping." *Archives and Manuscripts*, 33(1).
- Roberts, David, 1998. "The New Australian Records Management Standard." *State Records New South Wales*, [cited 2007.8.16].
 <<http://www.records.nsw.gov.au/publicsector/rk/sacramento/sacramento.htm>>.
- Schwirtlich, Anne-Marie, 2002. "The Functional Approach to Appraisal: The Experience of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Comma*, 2002 (1-2): 57-58.
- Simpson, Duncan & Graham, Susan, 2002. "Appraisal and Selection of Records: A New Approach." *Comma*, 2002 (1-2).
- Stephens, David O. & Roberts, David, 1996. "From Australia : The World's First National Standard for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Quarterly*, 30(4).
- TNA, Appraisal Project Board, 2004. The National Archives Appraisal Policy Background Paper: The 'Grigg System' and beyond. TNA, [cited 2007.10.18].
 <http://www.nationalarchives.gov.uk/recordsmanagement/selection/pdf/background_appraisal.pdf>.
- TNA, 1999. "Acquisition Policy." [cited 2007.10.18].

[〈http://www.nationalarchives.gov.uk/recordsmanagement/selection/acquisition.htm〉](http://www.nationalarchives.gov.uk/recordsmanagement/selection/acquisition.htm).

TNA, 2002, Evaluating Information Assets: Appraising the Inventory of Electronic Records, TNA, [cited 2007.10.18].

[〈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appraisal_toolkit.pdf〉](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appraisal_toolkit.pdf).

TNA, 2007, Acquisition and Disposition

strategy, TNA, [cited 2007.10.18].

[〈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acquisition_strategy.pdf〉](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acquisition_strategy.pdf).

Twigge, Stephen, 2005, “The Appraisal of Electronic Records,” Manual on Appraisal(Draft) : A Practical Guide for the Daily Problems of Appraising and Selecting Documents, ICA/CAP.